

가야·발해까지 아우른 민족문학사

「朝鮮文學史·上」 펴낸 이가원교수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한다. 하지만 호랑이의 가죽과 달리 사람이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건 자신의 뜻과 멀다. 후세 사람들이 선인의 흔적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그 정신을 계승했을 때에만 이름이 남는다. 문학사를 정리한다는 건, 어쩌면 시공을 초월하는 현미경으로 선대의 이름을 찾아내는 작업이 아니겠나 싶다.

국문학 분야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문학사관계 저술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나 평론가들이 문학사를 기술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사 기술에 있어 뚜렷한 관점과 개성을 건지한 문학사는 몇 되지 않는다. 대부분 몇 갈래로 구분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성향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성성한 백발에 묻어나는 폭넓은 학식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이번에 출간된 연민 이가원(淵民 李家源, 79) 단국대 초빙교수의 「조선문학사」(태학사)는 이미 발간된 여타 문학사와 여러가지 측면에서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책은 한문지식이 일천한 사람들이 읽기에 쉽지 않은 책이지만, 국문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독자에게는 이 교수의 성성한 백발에서 묻어나는 경륜과 폭넓은 학식을 대할 수 있는 한편의 웅장한 기록이기도 하다.

“어떻게든 조선문학사를 정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죽어도 이것만은 쓰고 죽어야겠다는 심정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내 나이 벌써 여든을 바라보고 있으니 쉽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의 제자들은 내가 구술하면 그걸 받아적겠다고 나섰지만 그것도 만족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 교수는 직접 조선문학사를 정리할 요량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그때가 93년 9월의 일이었다. 모든 자료가 구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작업이어서 그리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5년 전인지, 6년 전인지 한여름에 모기향에 중독이 돼서 손발이 떨리고 현기증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증상이 원고를 쓰기 몇달 전부터 재발해서 참 힘들었습니다. 모두 3천6백장 정도의 원고를 정리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지요.”

이 교수와 같이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 교수의 꼼꼼함에 혀를 내두를 듯하다. 원고교

정을 아홉번이나 손수 보고, 표지 도안도 허투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교수다.

‘조선’을 당당히 내세운 주체적 사관

책의 내용 또한 상당히 특이하다. 그 특이함은 우선 책의 제목에서 나타난다. 기존의 문학사 저서들이 ‘한국문학사’나 ‘국문학사’라 이름붙여진데 반해 이 책은 ‘조선’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전면에서 내세운다. 때문에 모두 13장으로 구성된 「조선문학사」 상책의 본문은 고조선시대부터 시작된다.

“이제 우리 겨레의 역사를 저술함에 있어서 어떤 단대적(斷代的)인 국호를 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마치 저 중국이 당·유(虞)로부터 명·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호가 없지 않았으나 통괄적으로 ‘중국’이라 함과 다름이 없이 당당히 ‘조선(朝鮮)’으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문학사」는 고조선의 문학을 ‘조선 수고시대의 문학’으로, 그 이후의 문학들을 남방문학, 북방문학, 남북사조의 합류, 유·불사조의 혼합, 신유학의 동점, 척불·송유의 사조, 훈민정음의 창제와 한문문학, 훈민정음의 수난과 성리학의 집성, 복고적 기풍과 경세(經世)문학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특히 고구려에서 나타난 북방문학에 흐르는 정신적 기초를 저항의식으로, 신라나 백제 그리고 가야의 남방문학에 흐르는 그것을 낭만적 사조로 규정하였으며,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에 이러한 남북의 사조가 합류되기 시작하였다고 보았다. 이 교수는 기존의 문학사들에 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거나 소홀히 취급되었던 ‘발해의 문학’과 ‘가야의 문학’을 독립시켜 논의하고 있다.

“발해는 독특한 자국의 언어를 한자와 병용하였고, 한자로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유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특이한 문자를 만들어 쓰기도 하였다”면서 ‘야청도의시(夜廳擣衣詩)’와 ‘봉화기조선공영설시(奉和紀朝臣公咏雪詩)’ 등의 문학작품을 문헌에서 찾아 수록함으로써 그 의미를 찾고 있다.

또 ‘구지가(龜歌歌)’만 일컬어지고 알려져 있는 가야의 문학에 대해서도 독립된 장을 마련해 설명하고 있다. 전승된 작품이 많지 않아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는 못했지만 가야는 신라와는 다른 독립국이라는 이 교수의 시각이 새롭게 다가온다.

고려의 문학에서는 무신란과 서민의 저항의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3천6백장의 원고를 집필하고 손수 아홉번이나 교정을 본 이가원 교수는 “한문학과 국문학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학사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발해와 가야의 문학도 독립시켜 거론한 이 교수는 새로운 주장들을 이 책에 담고 있다.



연민 이가원 교수

식을 중요한 변이 요인으로 잡았으며, 유교와 불교의 상호견제와 대립 역시 고려 이후 문학의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명실상부하게 통일국가를 이룬 고려문학의 경우, 세시기 즉 ‘유교·불교 사조의 혼합’ ‘무신란과 서민의 저항의식’ ‘신유학의 동점’ 등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시대별 사조 특징도 제시

질과 양의 면에서 가장 탁월한 조선조의 경우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척불·송유의 개장(제1기)’ ‘훈민정음의 창제와 한문문학(제2기)’ ‘훈민정음의 수난과 성리학의 집성(제3기)’ ‘복고적 기풍과 경세문학(제4기)’까지 언급했다.

“서양의 시대구분으로 우리의 역사를 재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양의 시대구분은 그들의 것이지 우리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왕조변천사로 문학사의 시대를 나누는 것도 타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실정에 제일 타당한 문학사 시대구분은 사상과 사조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 봅니다. 또 사회적인 격동기에는 전과 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변화도 문학사의 시대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즉 「조선문학사」는 문학작품들만을 단순히 시대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고, 각 시대별 문학에 흐르고 있는 사조적 특징들을 타당하

게 제시함으로써 시대사와 정신사(혹은 예술사)가 맞물린 ‘문학의 역사’를 정리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조선문학사」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울이 있다. 대부분의 한국문학사들이 국문문학만을 중심으로 한 데 반해서, 이 책에서는 한문문학을 국문학의 범주 안에서 체계적이고도 깊이있게 다루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즉 한국문학의 영역을 과감하게 확대한 것이다. “역대 문인들은 자신의 문자로 생각하고 한문을 사용했을 뿐 남의 문자를 빌려 쓴다는 의식이 없었다”면서 이 교수는 한문문학의 창작이 결코 자부심을 망각한 일이 아니었음을 실제 작품들을 들어 강조하고 있다.

“조운제씨는 「국문학사」에서 한문문학은 조선의 문학이 아니라고 봤던 듯한데, 그건 부당합니다. ‘홍길동’이나 ‘구운몽’도 애초에는 국문으로 씌어지지 않았습니까. 훈민정음만을 우리의 것이라 고집한다면 훈민정음 이전의 유구한 문학작품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라 해야 합니까. 훈민정음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합니까. 한문작품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정음문학사’만 갖게 될 것입니다. 조선사람이 조선사람의 정서를 표현한 모든 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훈민정음으로 이루어진 문학을 소중히 여긴다. 한문 문학작품은 대표적인 몇몇 작품만을 선별해서 소개한 반

대주신제국사



大朝鮮帝國史

한국민화문화상 수상

한국인 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우리 역사 - 올바른 역사의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보급판

대한의 젊은이여, 「대주신제국사」를 읽고 민족중흥의 역군이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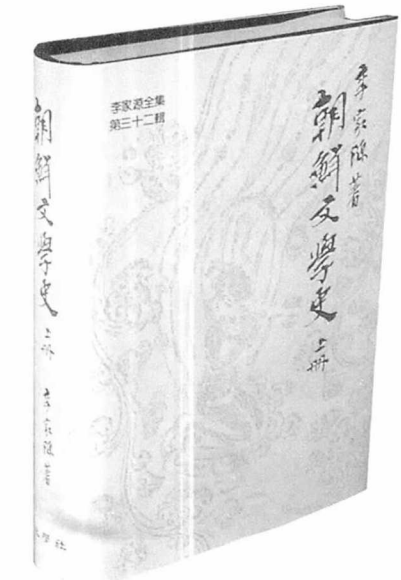
중국대륙에서 일본열도에 이르기까지 웅대한 기상을 드높였던 우리 역사의 흐름을 알고, 민족의 뿌리를 찾아가는 찬란한 우리 민족사 - 이제, 「대주신제국사」를 통해 잘못된 역사의 진실을 찾고, 장엄한 민족의 기개를 바로세워야 할 때입니다.

- 장서판 : 90,000원 (전3권)
- 보급판 : 29,400원 (전3권)
- 날권판매가 (각권 9,800원)

국내 최초의 회화본
산 호 글/그림



장서판



면 국문 문학작품은 거의 대부분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적으로 보면 한문문학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그걸 다 소개하고 설명할 수는 없다”면서 “책의 분량만 보더라도 훈민정음에 대한 내용이 거의 절반에 이른다”고 말한다. 한문·한글을 가리지 않고 뚜렷한 사관을 바탕으로 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현실과 문학적 산물들을 적절하게 융합해 다루었다는 평이 나올적이다.

한편 이 교수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주장을 「조선문학사」에서 펼치고 있다. 훈민정음 창제에 지금까지 알려진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강희안, 이개, 이선로 등 여덟명 이외에 세종의 둘째딸 정의공주가 참여했다는 새로운 학설이 그것이다. 이 교수는 그 증거로 이우준의 「몽유야담」 ‘창조문자’ 부분과 「죽산안씨대동보」 ‘정의공주유사’를 제시한다.

“우리나라 언서(諺書)는 곧 세종조 연창공주(정의공주)가 지은 것이다. 대개 우리 문자는 오랜 옛날부터 지어졌겠지만, 이제 다만 ‘정음’이 있을 뿐이다. 방언·속어를 다 기록할 수 없는데, 이 언문이 나오기에 이르러서는 반절(反切)로써 풀이하면 풀지 못할 것이 없으므로 부인·소자(小子)까지도 모두 익혀서 쉽게 알 수 있으며, 뜻과 말이 서로 소통되어 그 쓰임새가 심히 넓었다.”(「몽유야담」)

“세종이 방언이 문자로 더불어 서로 통하지 못함을 딱하게 여겨 비로소 훈민정음을 창제할 제, 변음(變音)과 토착(吐着)은 오히려 다 연구하지 못하여 제대군(諸大君)으로 하여금 풀게 하였으나 모두 풀지 못하였다. 드디어

공주에게 내려보내었다. 공주는 곧 풀어버렸다. 세종이 크게 칭상하고...”(죽산안씨대동보)

문헌상의 기록을 찾아낸 이 교수는 “공주의 협찬은 어느 한 부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한 곳에 미쳤을 것”이라고 말한다.

활자 인쇄 고집하는 노학자의 품모

성균관대 담장을 끼고 돌아가는 골목에 집을 지어 매화서옥(梅華書屋)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매주 토요일이면 제자나 한문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만든 ‘열상고전연구회’ 회원들을 모아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이 교수는 자신의 모든 자료와 소장 도서를 단국대에 기증한 상태. 비좁은 방에서 돋보기를 들고 「조선문학사」 하책을 집필중인 이 교수는 거의 모든 저서를 자비로 출판해왔다. 이 교수가 책을 출판할 때 고집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절대로 컴퓨터 사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난 컴퓨터 사식이 전혀 맘에 차지 않아요. 그건 유인물이나 쓰는 것이지 책에다 쓸 것은 못돼요. 손으로 쓱 밀어도 글자가 지워질 것 같거든요. 100년을 못가는 인쇄술로 어찌 책을 제작할 수 있겠습니까. 활판은 꼭꼭 눌린 것이어서 1천년도 더 갈 수 있는 생명이 긴 인쇄술입니다. 내 책은 모두 활판인쇄로 제작했어요. 지금은 활자조판하는 곳이 내 군데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적어도 내 책만큼은 활판인쇄를 고집하고 싶어요.”

서예에도 정통해 한국현대미술대상전 서예심사위원을 역임할 정도인데, 거기에 더해 난·수석에 관한 조예도 깊다. 주위 사람들은 이 가원 교수를 애연가로 단정하는데, 아닌게 아니라 이가원 교수의 방에서 눈에 띄는 담배파이프만 해도 대여섯개, 여기에 곰방대까지 있다. 30센치 가량의 곰방대를 즐겨 사용하는 이 교수는 그 예찬론도 빼놓지 않는다.

“우선 재가 떨어져 옷을 태울 염려가 없고, 담배맛도 일품이지, 담배 절약되지, 구멍이 막혀도 청소하기 쉽지, 해서 우리 곰방대가 참으로 과학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교수는 요즘 바둑 2급의 실력에 손자같은 청년들과 어울려 바둑두기가 즐겁다고 한다. 실력에 밀려 어디를 두어야 할지 끔찍 않는, 작은 것에서 감사를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아는 노학자의 품모는 그래서 아름답다.

—이성수 기자

유머와 해학이 담긴
대하 역사 만화소설

고우영 만화 심팔사략

심팔사략(十八史略)이란?
중국의 정사 26종 중 사마천의 사기(史記)에서 탁극락의 송사(宋史)까지 18가지의 정사를 완납시 때 증신자가 심팔사략으로 요약한 책

지금, 4천년 중국 역사의 주역들이
고우영의 유머와 해학속에 다시 태어난다.

역사의 술한 인간상들에게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방식을 발견하십시오.

중국 역사중 가장 흥미있고 중요한 사료와 인물들을 총망라하여 고우영의 유머와 해학으로 펼쳐가는 「만화 심팔사략」 - 경영전략, 인생지략은 물론 삶의 철학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값/각권 5,000원



1, 2, 3권
절찬리 판매중

동아출판사
TEL: 861-4818/853-5608